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A씨는 성인이 된 후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기는 현실적으로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한국 국적까지 잃고 싶지는 않았다.

많은 해외 동포들이 공통으로 겪는 고민인데, 해결책이 되는 제도가 바로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이다. 외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어, 복수국적자에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는 것이다(국적법 제13조제1항). 이 서약을 하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는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지만, 외국 국적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여행할 때는 여전히 해당 국가의 여권을 사용할 수 있고, 외국 국적자로서의 지위도 그대로 유지된

다. 한국 안에서만 한국인으로 살겠다는 약속이므로, 양쪽 국적의 혜택을 상당 부분 누리면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다.

이 서약이 가능한 시기는 법이 정한 국적 선택 의무기간 내로 한정된다.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2년 이내에 서약을 마쳐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외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어, 기한 엄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복수국적자가 이 서약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해외원정출산’, 즉 출생 당시 엄마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경우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 허용되지 않는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1조). 서약을 하려는 사람은 출생 당시 엄마가 그러한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외원정출산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를 입증할 수 없어 서약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다면 외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하는 방법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예외적으로,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친 남성은 복무 완료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추가 기회가 주어진다. 다만, 해외원정출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예외도 적용되지 않는다.

서약을 하려는 사람은 국적선택 신고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서, 외국 여권 사본 등을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번역문과 번역자의 성명·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복수국적은 한국과 외국 양국에서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만큼 법률이 정한 의무와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적선택과 관련된 기간 및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정해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바른

신용대출 규제에 대하여



김지수첩

나유리
(금융부)

최근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기가 부쩍 어려워졌다.

한도는 줄고, 마이너스통장은 연장하면서도 사용하지 않은 금액 만큼 한도가 깎인다. 일부 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접수를 중단하기도 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은행들도 일제히 문턱을 높인 결과다.

이 같은 조치가 나온 이유는 분명하다.

최근 주식시장이 살아나면서 ‘빚투’가 다시 늘고 있다. 빚을 내 투자하는 수요가 커지면 가계부채는 빠르게 불어난다. 금융당국이 이를 미리 막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신용대출이 꼭 투자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에게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은 장사를 이어가기 위한 비상금이다.

갑자기 매출이 줄었을 때 임대료를 내고 직원 월급을 지급하는 데 쓰인다. 작장인도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생활비가 필요할 때 신용대출을 찾는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출은 투자가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안전망인 셈이다.

문제는 지금의 규제가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투기 목적의 대출도, 생계 목적의 대출도 같은 기준으로 막고 있다. 빚투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정작 생계형 차주의 숨통까지 조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다.

해외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 대출 관리는 유지하되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은 별도 프로그램이나 보증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위험한 대출은 막되 꼭 필요한 대출까지 막지는 않는 것이다.

물론 실수요를 가려내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자금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모든 차주를 같은 기준으로 묶는 것보다는 목적과 상환능력을 고려한 정교한 심사가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모든 대출을 같은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투자와 생계는 목적부터 다르다. 빚투는 막되, 생계를 위한 자금까지 함께 막는 정책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촘촘한 규제가 좋은 규제인 것은 아니다. 필요한 곳에는 길을 열어두는 세심함이 지금의 금융정책에 더 필요한 덕목이다.

/yul115@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3일 (음 5월 29일) 포춘토리(fortunetory.com)



48년생 남과 다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60년생 재물을 다투는 일이 따를 수 있습니다. 72년생 이성운이 좀 불리합니다. 신중히 다가가세요. 84년생 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9년생 자신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61년생 능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73년생 정신적으로는 배우고 연구하는 문제가 우선 과제입니다. 85년생 생 각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50년생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위협합니다. 62년생 자중하지 않으면 화를 입을지도 모릅니다. 74년생 쓸데없는 것에 눈을 돌리기가 쉽습니다. 86년생 음식을 조심하도록 하세요.



51년생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세요. 63년생 선물을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75년생 건강을 위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87년생 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52년생 기운이 왕성하고 좋은 편이니 자신감을 갖고 하루를 보내세요. 64년생 너무 자만해서는 안됩니다. 76년생 하는 일들이 잘 풀립니다. 88년생 오래 전부터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53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65년생 세상 어느 구석에도 갈 곳은 없습니다. 77년생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89년생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54년생 차근차근 이루어질 것입니다. 66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78년생 친구들과 재미있는 영화를 보세요. 90년생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자식들의 도리입니다.



55년생 운동 부족으로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67년생 여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79년생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90년생 지금은 더욱 열심히 할 때입니다.



56년생 도움을 받아 일을 추진하도록 하세요. 68년생 추억속에 친구가 있습니다. 80년생 아주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92년생 모두들 당신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주목할 것입니다



57년생 경가망동을 삼가고 신중히 행동하세요. 69년생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향상됩니다. 81년생 사소한 다른 일이 생깁니다. 93년생 하는일이 잘 풀립니다.



58년생 저녁에 잡는 악운은 신중하게 결정하는게 좋겠습니다. 70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82년생 시비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94년생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손해를 당할 것입니다



59년생 모든 것이 처음으로 날 것입니다. 71년생 밝은 이름을 얻었고 재물을 얻을 것입니다. 83년생 피하던 일을 이룰 수 있고 바라던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95년생 즐거운 하루입니다.



김상회의四季

천지감응(天地感應)

천지감응은 하늘과 땅이 서로 느낌, 기운의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니 음과 양의 대표적인 물상이다. 실질적 에너지의 속성을 대표하는 내적, 외적 에너지를 말하며 주역의 함괘(咸卦)를 비롯한 여러 괘에서 ‘이기(二氣)가 감응한다’는 의미이다. 동양사상에서는 매우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사상으로 자연적 물질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정신적 의미로도 그 상징을 넘어 음과 양의 유기적 감응을 의미한다. 무릇 생명 있는 모든 유정은 물론 무정들의 속성조차 함축하는 사상이로서 인간의 삶은 물론 풍수나 장묘 등 영향을 끼친다. 같은 기운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원리인 ‘동기감응(同氣感應)’은 물론 자연재해 등 설명되지 않는 현상은 대부분 하늘이 노하고 땅이 놀란다는 식의 징벌 경고나 권선징악과 같은 일도 하늘의 상벌로 이해하고 해석하였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의 천지자연 현상에 대한 인식이었다.

이러한 천지감응 인식과 이해는 흥수나 가뭄처럼 인간에게 힘든 자연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하늘이 노하였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런 이유로 임금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등의 행사를 자냈다. 인간들이 인류와 천운을 어기는 일, 특히 천자나 제후들이 도리에 어긋나게 나라를 잘못 다스려 내리는 하늘의 경고이자 벌이라고 보았다. 이런 이유로 한 대의 동종서는 ‘천인감응설’(天人感應說)이라는 논리까지 내세워 막강한 권한을 가진 천자를 제어하기까지 한다. 춘추전국시대를 풍미한 제자백가들의 사상 중에서 가장 하대(?)발전 사상이 바로 공자의 유가 사상이었는데, 유가 사상을 국가수정의 기틀로 확립한 이가 바로 동종서인데, 바로 그다운 발상이었다고 생각된다. 천지가 감응하여 천하를 제패했으니 하늘이 돕고 땅이 도와 천자는 하늘이 낸다고 말하니 제세이화(濟世理化) 한다는 믿음이 생긴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5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55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작발행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결란스도쿠110

문제출제: 손호성

서울은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ㅈ	ㄴ	6	ㄷ	ㅅ	ㄹ	ㄷ	ㅅ	8
ㄷ	ㄷ	ㅅ	8	9	ㄴ	6	ㅈ		
6	ㄴ	8	ㅅ	ㄷ	ㅈ	ㅅ	ㄷ	9	
8	9	ㄷ	9	ㅈ	6	ㅅ	ㄴ	ㄷ	
ㅅ	9	ㅈ	ㄴ	ㅅ	6	8	ㄷ		
ㄷ	8	9	ㄴ	6	8	ㅈ	ㅅ	ㅅ	
ㄷ	6	ㅈ	9	8	ㄷ	ㅅ	ㅅ	ㅅ	
ㄴ	ㄷ	ㅅ	8	ㅅ	ㄴ	9	ㅈ	6	

ㄴ	ㅅ	8	ㅅ	ㅈ	ㄷ	6	9
9	ㄴ	6	ㄴ	ㅅ	ㄷ	8	
ㄷ	ㅅ	ㅈ	9	8	6	ㅅ	ㄷ
ㅈ	8	9	ㄷ	6	ㄴ	ㅅ	ㅅ
ㅅ	6	ㅈ	8	9	ㅅ	ㄴ	ㄴ
ㅅ	9	ㄷ	ㄴ	6	8	ㄴ	ㅈ
8	ㄴ	ㄷ	9	ㅅ	ㅅ	9	6
6	ㅈ	9	8	ㄷ	ㄴ	ㅅ	ㄷ
ㄴ	ㄷ	6	ㄴ	ㅅ	9	8	ㅅ